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지지 동의서

의원님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 스스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모두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라는 단일 연대체를 만들어 5년을 **한결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장추련은 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체 국회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48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절실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일구는 **의원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지 서명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장애인의 염원을 가슴으로 받아주시고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경우, 차별이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이 법을 만들었기에 다양한 장애인 차별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국민적인 교육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고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이 가지는 힘은 장애인 차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을 정의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권 존중이 주요 가치이며, 사회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로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더 이상 차별 받고 싶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480만명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원님의 진심어린 동의를 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지 서명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_____ (서명)

2006년 월 일